논어 9편 자한 8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吾有知乎哉？無知也。有鄙夫問於我，空空如也，我扣其兩端而竭焉。」

독음 · 자왈 오유지호재 무지야 유비부문어아 공공여야 아구기량단이갈언

쉬운 풀이(요약) · 평범한 사람이 물으면 처음부터 답을 아는 척하지 않고 문제의 양끝을 짚어 충분히 따져 준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吾 자기 오 오 / 有 있을 유

知 알 지 / 乎 어조사 호 / 哉 비로소 재 재 / 無 없을 무 무

也 어조사 야 / 鄙 다라울 비 비 / 夫 지아비 부 부 / 問 물을 문 문

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我 자기 아 아 / 空 빌 공 공 / 如 같을 여 여

扣 두드릴 구 구 / 其 그 기 / 兩 두 량 량 / 端 끝 단 단

而 말이을 이 / 竭 다할 갈 갈 / 焉 어찌 언 언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